

하루를 시작하며



이종실 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 이사장

오즘같이 어려운 시대, 문화·사회적으로 대세는 MZ세대다. 코로나19는 일 년 반이 지났으나 물러갈 기미 없이 더 기승부리고 있다. 나라 안팎의 사정도 여러모로 어렵다. 이 무고한 세대가 미증유한 'hpo'의 고조를 겪고 있다. 그나마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활발한 소통과 돌과의 도구가 돼 주고 있어 다행이다. 이게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언택트 시대를 어찌 견뎠을까. 그래서 MZ세대와 SNS 소통의 방식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게 됐다. 한때 이 세대는 우리와 소원하며, 그들만의(?) SNS가 소통의 단절을 초래하고

MZ세대를 응원한다

있다고 여긴 적이 있다. 이제 그렇게 채웠던 사고의 문지를 깨부수려 한다. MZ세대를 응원한다. 이 세대는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사이에 태어난 Z세대를 이른다. 이 세대의 구성원들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부모로 두어 비교적 풍족하게 성장하며, 아날로그를 거치지 아니한 디지털 원주민으로 불린다. 대체적으로, 사고가 시원하고 기발하다. 세롭고 이색적인 것을 추구하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한다. 기존의 제약이나 규정보다 자신의 판단을 중시하면서, 정보의 공유를 즐긴다. 이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활발한 SNS 소통이다. 가히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시대를 제대로 잘 누리고 있다. 오늘날 SNS 소통은 모든 세대에 게 유용한 도구가 돼 주고 있다. 이

세대면의 시대, 소통의 단절과 행동의 제약은 작고 큰 개인의 이상행동과 사회적 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다. SNS는 비대면 소통을 충실히 실행하는 도구다. 이게 없었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시국을 나고 있었을지 가늠하기 힘들다. 불행이나 난국은 다 형편을 보며 찾아오는 것 같다. 고도의 전산화 시대가 아니었다면 코로나19의 방역과 검사, 유증상자, 확진자, 환자 등의 파악·관리는 어떻게 했을까. 어려움은 코로나19만이 아니다. 평등과 공정과 정의가 어지럽게 출추고 있고, 집단 지성의 마비와 환각의 바이러스가 함부로 날뛰고 있다. MZ세대는, 이에 대한 풍자와 냉소적 감정을 신조어의 창조와 공유를 통해 분출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 조어에서 재치를 찾아보며 그 세대를 응원한다. 예전 '버카중'(버스카드 충전)과 '생선'(생일 선물)

을 본 적이 있다. 물지각한 세대가 훌륭한 우리말을 '인봉'(언어 봉기)시키고 있다고 '멘봉'(멘탈이 봉기)했었다. 이제 비록 '나일리지'(나이 마일리지) 높은 '야씨'(아웃사이더)지만, 감히 그들 편에 서 본다. '미묘'(예쁜 교양이)나 '맹맹이'(맹맹이)를 벗으로 삼고, '불소'(불타는 소)가 끊기지 않게 '보배'(보조 배터리)를 잘 챙기자. '고담'(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인 세상, 엄감생심 '스라벨'(공부과 생활의 균형)을 꿈꾸다가 '갑툭알'(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라도 해야)이면 어쩌랴. '금탄'(금수저 인턴)이 못 돼도 '툭곡'(눈물)을 감추자. '알부자'(알바를 여럿 하는 사람)나 '편도(편의점 도시락) 쪽'으로도 꼭 살아남자.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와 'JMT'(좋은 맛탕, 아주 맛있는 것)을 즐기면 서라도 이 쓰디쓴 난국을 견뎌내자.

사설

도의원 정수 증원, 도민여론과 맞지 않다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결론은 도의원 정수 증원이 다. 예상대로다. 선거구획정위가 도민여론 수렴을 위해 마련한 토론회를 통해 이미 예견됐다. 그 골자는 도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모아졌다. 문제는 대다수 도민들은 도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정수가 앞으로 3명 더 늘어난다. 선거구획정위는 옛 그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의원 선거구 획정 권고안을 제주도에 전달했다. 첫번째 권고안은 도의원 정수를 현행 43명에서 46명으로 증원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인구 감소에 따른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한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기준(3대1 비율)에 따라 인구 하한 면을 선거구를 유지하게 된다.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

도 인근 동지역과 통합할 수 있어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 또 인구 상한선 기준을 초과하는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선거구는 분구를 가능하다.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하더라도 도의원 정수는 2-3명 늘어날게 된다. 결국 어떤 방안이든 도의원 정수 증원에 맞춰졌다. 2018년 치른 지방선거 때도 도의원 2명을 늘렸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정수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때문에 선거구 획정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도의원 정수를 계속 증원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선거구획정위가 최근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도 배치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조사에서 현재 도의원 정수(43명)에 대해 '적당하다'가 50.1%로 가장 많았다. '모자라다'는 의견은 11.1%에 그쳤다. 선거구획정위가 이같은 도민여론을 무시한 채 손쉬운 도의원 증원을 밀어붙여 심히 걱정스럽다.

'악화일로' 서부권 지하수 오염, 걱정 크다

서부지역 지하수 오염설대가 '악화일로'로 심각한 우려다. 이미 제기된 오래된 서부권 지하수 오염은 토양과 물의 오염에다 도민들의 불안, 청정제주 이미지 훼손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행정은 오염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면서 여태 설득력있는 해법을 제시하지 않아 오염을 키운다는 의심마저 받고 있다. 도와 농어촌공사제주분부가 최근 밝힌 '지하수 관정내 질산성질소 오염도 평가' 결과 질산성질소 오염도 지수 최대값인 108점에 가까운 100점 초과 관정으로 61개소를 밝혀냈다. 해당 관정은 대정유역 57공, 한경유역 4공으로 모두 서부지역에 있다.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대표 유해 무기물질인 질산성질소 농도가 도내 가장 넓은 농경지 면적을 지닌 대정·한경지역에 과다한 화학비료 사용으로 높여져 토지와 지하수에 심각한 오염을 일으킨다는 분석이다. 그간 서부권 지하수 오염은 줄

곧 제기돼 상황을 악화시켜 왔다. 도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 지난 2019년과 지난해 상반기 한림한경 애월지역 관정서 병원성 세균과 질산성질소 기준치 초과 검출로 문제된 바 있다. 특히 한림지역은 2019년 농업용 생활용(개인) 관정과 먹는물용 공공관정 대상 전수조사결과 해발 200m 이하 대부분 지역서 높은 오염치를 보였다. 주 오염원은 화학비료 과다사용, 양돈장 배출분뇨로 지목된 지 오래다. 농가의 화학비료 과다사용을 막도록 작물별 표준 사용량을 밝혀냈다. 해당 관정은 대정유역 57공, 한경유역 4공으로 모두 서부지역에 있다.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대표 유해 무기물질인 질산성질소 농도가 도내 가장 넓은 농경지 면적을 지닌 대정·한경지역에 과다한 화학비료 사용으로 높여져 토지와 지하수에 심각한 오염을 일으킨다는 분석이다. 그간 서부권 지하수 오염은 줄

뉴스-in

민주당 순회경선 제주 아닌 충청서 출발

윤호중 "균형적 경선 각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가 31일 대전 충남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시작으로 첫 일정에 돌입.

민주당은 순회 경선을 도입한 이후 매년 제주를 첫 경선지로 삼았지만, 20대 대선 경선에서 처음으로 대전·충남을 첫 경선지로 결정.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중원 충청 출발 경선레이스는 순회 경선 도입 이후 최초"라며 "이는 균형적이고 역동적인 경선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굳은 각오와 결의를 가진 것"이라고 설명. 부미현기자

김만덕 사랑의 쌀국수 전달

○...김만덕의 나눔 정신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석맞이 김만덕 사랑의 쌀국수 나눔 전달식이 31일 제주시장 집무실에서 개최돼 시 관내 26개 읍면동별 취약가구를 선정해 총 1040개를 전달할 계획.

이번 김만덕 사랑의 쌀국수 나눔 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제라이온스협회354-G제 주지부, 서귀포수협, 제주도 환경운영위원회협의회 후원으로 조성. 안동우 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김만덕 사랑의 쌀국수 나눔으로 훈훈한 정열이 될 것"이라며 고마움을 표시. 이윤형기자

해녀 무선위치발신기 시범운영

○...서귀포시가 해녀의 나잡이업 활동 증진과 안전 조업 도모를 위해 안전 장비 지원에 1500만원을 투입해 시범운영할 계획.

31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무선위치발신기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시는 스마트폰 위치추적 앱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녀들의 조업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소개.

시 관계자는 "지구별 서귀포·성산포·모슬포수협에 사업비를 교부해 각 수협에서 장비 25대를 구입해 오는 9월까지 아촌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 백규탁기자

열린마당

학력격차, 교육공동체와 지역공동체의 역할



고창근 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우리 교육은 코로나19로 사상 유례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 원격수업의 질과 학생들의 환경에 따른 학습격차 문제가 1년 내내 이어졌다. 부실한 원격수업으로 학습격차만큼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지고 '학생 방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이렇게 할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등교 수업으로 돌아가면 원격수업은 끝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교육의 미래라고 보고 수업의 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거나 학생 반응을 확인하지 않는 일방향 수업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원격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쌍방향 피드백인데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

이다. 지역·학교·가정 간 원격수업 실태를 재점검하고 쌍방향 수업 확대 등을 위한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부, 교육청, 학교 라인이 다른 시스템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지자체, 학교의 원활한 소통이 어렵다는 것을 고민하는 주체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 원격수업에 필요한 시스템을 지원하고 학교현장을 공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사회적 시스템이 공조돼 정책과 제도가 마련돼야 하고, 수업일수가 줄어들므로써 초래된 학습량이 감축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적정화가 필요하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가 아닌 이미 발생한 학습격차, 학력저하를 보완하고 보충하는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최소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중·고교의 학습 결손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이 무한 책임을 지고 메워줘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가 하루속히 바이(Bye)코로나를 염원하고 있다. 선생님들도 학부모의 입장에서 시각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학교 공동체, 지역공동체가 같이 균형 있고 민주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술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립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압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국제보청기프라자
문의번호 2007-GN1-26-0155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라파출소, 한라체육관, 시내수영장
대표: 임창완
직접수리·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열린 기술 습득, 기술인력 개발,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064)725-0993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